

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 민간위탁 철회 및 정규직전환 촉구 기자회견

---

2018년 07월 04일(수) 오전 10시, 예산군 기자회견실

♠ 순 서 ♠

- 취지 및 배경설명 : 충남공공노조 조직국장
- 규탄발언 : 충남공공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다문화센터 노동자 대표

 **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

## [기자회견문]

<예산군 다문화가족·건강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 공고 철회 및 기간제 정규직전환 촉구 기자회견>

**예산군은 다문화센터 민간위탁 공고를 철회하라!!**

**예산군은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을 준수하라!**

**예산군은 다문화가족·건강가정 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우리는 예산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건강가정 지원센터(이하 통칭하여 '다문화지원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각각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건강가정 구현에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는 2008년 이후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사)행복나무가 수년간 수탁 받아 운영하였으나, 예산군 스스로 '민간 운영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한계,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점을 인정하여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지난 5~6년을 근무하여 이미 업무의 상시·지속성이 있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치에 부합하나, 그 동안 기간제법의 예외사유라는 이유로 기간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된 후 지난 2017. 07. 20.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설명자료」에 "직접 일자리사업 중 정규직 전환 대상 포함 가능 사업"으로 ①여성가족부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1단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어(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예상)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②충청남도 역시 "운영기관을 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직영) 동 시설 종사자는 '지방자치단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로서 정규직 전환 대상임" 확인해 주었습니다. 충남 내 15개 지자체 역시 기간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심의 기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군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발표 후 2018년 1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단 한 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8. 1. 16. 주민복지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한 군의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3월 예산군의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정회를 한 후 졸속처리하여 이를 가결하였습니다.

충남공공노동조합과 다문화지원센터 노동자들은 2018. 05. 31. 이에 대해 전환심의 담당부서 및 주민복지실과 노정 간담회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전환심의의 책임부서인 총무과 담당자는 주민복지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도 인지하지도 못했음을 실토했으며, 주민복지실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민간위탁만이 정답’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예산군수는 다문화센터 노동자들의 민간위탁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임일 2018. 7. 2.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요체는 군민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들을 지원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은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한다’는 허무맹랑한 근거를 내세우며 민간위탁·간접고용이라는 지난 정권의 구시대적인 망령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간접고용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이며, 비리와 잡음의 시작이자 관리감독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군은 2014년 말 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을 집단으로 해고하여 고통의 나락으로 몰아넣은 전력이 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 과오를 바로잡지 않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책에 반기를 들어 지난 20여년의 노동적폐인 민간

위탁·간접고용을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이미 민간위탁을 공고하였지만 우리 노동조합과 다문화지원센터 노동자들은 예산군의 다문화센터 민간위탁 공고를 철회시키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쉼 없이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충남공공노동조합의 요구사항 ★

1. 예산군은 다문화가족 · 건강가족지원센타 민간위탁 공고를 철회하라 !
1. 예산군은 다문화가족 · 건강가족지원센타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1. 예산군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준수하라 !
1. 예산군은 정규직심의위원회를 가동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

【보도자료】 별첨

【참고자료】

1. 2017.07.20.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췌자료
2. 2017.09.12. 충청남도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안내」
3. 2018.01.16. 군의회 간담회 자료
4. 2017.03.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예산군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5. 2018.03.21. 제238회 예산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6. 2018.03.21.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예산군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7. 2018.03.23. 제238회 예산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8. 2018.05.31. 「예산군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간담회 자료」
9. 2018.07.02.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예산군 다문화가족 · 건강가정 지원센타 노동자 일동//